

“현장경험 살려 신행혁신 앞장”

조계종 새 포교원장 성 타 스님

지난 17일 조계종 제119회 정기총회에서 6대 포교원장으로 성 타 스님(불국사 부주지)이 선출됐다.

스님은 불국사에서 출가한 이후 줄곧 경주지역에서 수행하면서 강사로서 후학 배출과 포교를 병행해 왔다. 또한 사회적으로 불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 모색을 위해 지역에서 경실련등 대사회운동단체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스님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랜 포교일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단없는 신행

라 불자들이 이해할만 하지요. 각 종파 별로 색깔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학자들은 일본의 불교는 학문적으로 발전했으나 오랜타성에 있어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신종교가 성행하고 때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반면에 한국 불교는 오랜역사와 함께 수많은 자기혁신을 시도해왔습니다. 이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수요 인터뷰

혁신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진흥을 위한 포교청사진” 수립, ‘통일법요집’ 추진, ‘법회와 설법’ 발행, ‘96년 불교청소년의 해’ 전개 등 커다란 짐을 싣고서 힘차게 나가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의 신임 원장 성 타 스님의 포부를 들어본다.

비구니스님 활동역량 기대

—먼저 축하합니다. 소감은.
▲지난 1년동안 포교원은 어느때 보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포교청사

약력

- 52년 불국사에서 원스님임을 은사로 사미계수지
- 70년 법주사 강사
- 80년 6대 이후 7, 8, 10, 11대 중 앙중회의원
- 91년 불국사 부주지
- 현재 (사)대자연환경보존회 이사장, 원효학연구원 이사장



내년 ‘불교청소년의 해’ 맞아 미래불심 심기 주력 계층·직능별 포교전문화 추진...인력확보에 최선

진을 수립하고 내년을 불교청소년의 해로 지정한 것은 1천4백년 한국불교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임 정락스님의 선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락스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갑자기 제가 후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중을 위한 봉사이기에 성심껏 주어진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미래 한국불교의 성패는 포교에 달려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포교현장에서 보신 한국불교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경주에 오래 있다보니 외국인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인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는데 대부분 한국불교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일본과 한국은 종파불교로 비슷하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종파는 수백년을 이어온 것으로 가중, 전통, 특성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종파역사는 불과 50여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서로 비슷하고 전체불교의 80%를 조계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나

▲한국불교는 근세들어 두번의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해방후 비구대처의 갈등이고 또 하나는 지난해에 있었던 불교개혁입니다. 모두가 불교정화와 스스로의 자정으로 이겨냈습니다. 한국불교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비구니스님의 역할은 매우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만 해도 비구니스님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구니스님들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포교원에서 관심을 갖고 비구니스님들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불교에 있어 전통신앙을 주관하는 무속인들을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마전 타종교에서도 세미나를 통해 무속인을 포용하지는 주장이 제기 되었습니다. 불교계도 무속인에 대한 관심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무속인들을 최대한 포용하여 올바른 신행의 길로 이끄는 포교를 위해 포교원을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포교원은 출범이후 많은 일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어 개혁중단의 선

봉장이라는 평을 받고있습니다. 신임 원장스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포교의 목표가 있다면.
▲10년전 스리랑카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사찰이 있고 항상 개방되어 계층별로 신행활동을 펼치고있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리랑카 불교가 성행할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계층별로 전문화된 포교가 펼쳐져야 합니다. 최근들어 도심속에도 포교당이 늘고 일요일회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더욱 세분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포교원은 신도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에게 서비스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포교를 하는 사람이나 불교귀의를 원하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추어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수철 경주총과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계적 문화재 보호와 지역발전입니다. 경주 경실련은 경주를 우회하는 제3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안은 경주 주민들도 많은 호응을 하고 있어 정부관계자들의 결단만 남았다고 봅니다.

—지역적으로도 중요한 일들을 맡고 계셔서 더욱 기대가 큼니다. 앞으로 포교원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 까지 계층별 직능별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전문가가 따라야 합니다. 현재도 포교원의 공간과 인력이 절대부족해 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앞으로 포교원은 신도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에게 서비스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포교를 하는 사람이나 불교귀의를 원하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추어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나의 수행일기

조철규 <공니무원화재단 대표>



우리는 누구나 어떤 모습으로든 수행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삶의 의미를 느낄 무렵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이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 어려운 일로 여겼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힘써 닦아 쌓아 간다는 의미의 수행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일로 어렵듯이 짐작하고 있었다.

영동한 구석이 있었던 나는 힘든 사랑보다는 혼자하는 수행이 쉬울 것 같아 일의 선수를 정하여 수행부터 시작한 셈이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게도 ‘사랑’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수행을 발미로 삼아 일찍 사랑을 포기한 도피였음을 알게 되었다.

아무튼 내 주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훌쩍 떠나는 길을 택하게 되었고, 이때가 1학년 고등학교생이었다.

이 발상 자체도 고작해야 동서남북으로 쭉린 성문으로 나아가 누구든 태어나면 병들어 늙고 죽는 것과 수행하는 성자의 거룩한 모습

은 친구와 어울리지 못했고 집이나 학교가 도무지 싫어졌다.

자연히 조용한 산을 오르게 되었고 그곳에는 명당자리만 골라왔을 절간이 바다속의 섬처럼 떠올라 보였다. 절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두렵게만 느껴지던 스님한테 용기를 내어 말을 붙여 보았고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복잡한 문제들로부터 이 섬에 닿을 내림으로 이런 어려움을 물로부터 청산해보고 싶은 탈출에 부합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괴로운 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만 누릴 수 있다면 도저히 불만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실천하기로 했다. 밤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부지런히 짓고

“선택받은 자기 삶 사랑이 수행”

산사생활은 생각의 너비·깊이 더해준 밑거름

을 만나게 된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문유관상으로 학교 교과서에서나 접한 지식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태자의 신분으로 이미 한나라의 왕에 오를 수 있는 지위도, 아름다운 여인 마야부인도 뒤로 하고 공성을 넘어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혹독한 고행의 길을 택하여 설산으로 향하지 않았던가...



빨고 쓸고 닦았다. 이 행자생활을 나를 떨어내고 비울 수 있는 잣대로 삼아 수행했다.

이후 득도하여 승려의 신분에서도 그림자처럼 떨어질 수 없는 갈등과 번민은 나를 무던히도 곤혹케 했으나 그것들은 오히려 나의 생각을 넓혀주었고 깊이를 더해준 밑거름이 되었다.

그에 비하면 난 도대체 무엇인가? 더 이상 무엇에 주저할 것인가? 이런 생각에 이르자 집을 떠나기로 하였고, 사실 나를 예위 한 주변이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게끔 상황이 전개되어 있었다.

국민학교 5학년이었다. 처음 수업을 경험하게 되었고 짜릿한 쾌감 뒤에 오는 불쾌감이 죄의식으로 남아 늘 꼬리표처럼 붙어다녀 고민하게 했다. 시집은 이웃집 새댁을 흥미있게 지켜 보았고 남산만한 배가 불러 뒤뚱이는 오리걸음 뒤에는 어느날 금줄이 걸리고 아기를 울음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앙증맞게 들려왔다. 무척이나 따랐던 형이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 말려 지게되어 된채 대문을 나서고부터 더욱 우울해 졌다.

여기에서 이웃집 동생 여학생이 오빠가 있다는 서울로 고등학교를 진학해 갔고 방학이 되면 내려와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시골구석 학교에 다니는게 참괴롭고 도시에 나가 공부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이리저리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으로 오는 방향

결국 수행이란 선택받은 자기 삶을 사랑하는 일이며 사랑하는 삶이란 수행과 함께 이루어져 공유하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삶이란 참으로 존재해 볼만하 가치있는 것임을 알았고 이런 길을 선택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할 수 있었다.

새롭게 인식된 눈으로 세계를 볼 수 있었고 그것은 곧 불법과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다. 산을 내려온 지금도 나는 일주일 에 한번은 꼭 부처님을 정기적으로 찾아 108참회를 거르지 않고 있음은 물론 하루를 시작할 때나 잠자리에 들기전 짧은 시간이거나 참선을 생활처럼 여겨 행할 때 단행 수행의 끈을 생명줄처럼 놓지 않고 있다.

수행은 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율해 보면 참으로 값진 삶의 기묘한 리듬을 두들겨 낼 수 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로운처럼 맑으면 맑은 날로 햇살을 부어주고 굶으면 맑은 날로 비를 내리듯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되어 바르게 살아가고 싶다.

국씨전영양소 전국 광역시단위 총판 및 시도지역 대리점 모집

확실한 성공 사업의 지름길로 초대합니다

- 유통업자
- 기존 다이어트 아이템 취급자
- 사업체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분
-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는 분

세계인을 위한 다이어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 비만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고혈압·당뇨·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합니다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한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작하여 만든 제품.

부산경남총판 (051) 818-0337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중국 고위 건부 주거지/모택동 동소영 등 역대 중국국위관리) 食品營養 高문 임명. 현 제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간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정우무역 전화:(02) 929-0214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